

KIA 스코비 믿음 확 주네



22일 광주서 롯데와 국내 데뷔전

7.10닝 6K 4 피안타 1실점 쾌투

최고구속 144km... 슬라이더 돋보여

올 시즌 초반 선발 마운드의 붕괴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서정환 KIA 감독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 꽃이 활짝 피었다.

새 외국인 투수 제이슨 스코비(29)가 한국 첫 데뷔무대에서 완벽한 호투쇼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퇴출된 세스 에서튼을 대신해 지난 18일 입국한 스코비는 22일 광주 롯데전에서 첫 선발로 등판, 7.10닝 동안 안타 4개를 맞고 삼진을 6개를 속아낸 뒤 4-0으로 앞선 8회 1사 1루에서 내려갔다.

구원진의 '불쇼'로 역전을 허용한 탓에 1자책점이 기록됐고, 한국 무대 첫 승도 놓쳤지만 완벽한 완봉조절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두뇌 피칭'은 보이 이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 산하 트리플A 시라큐스 스카이치프스 소속이던 8일 선발로 5이닝을 던진 뒤 14일 만에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스코비는 당초 우려됐던 시차 및 실전 적응 능력을 뛰어넘어 자신의 요구로 예정된 투구수인 80개를 보다 많은 96개를 던지는 열성을 보였다.

20일 잠실 두산전에서 구원 등판, 1.1이닝 동안 점수를 주지 않고 테스트를 마쳤던 스코비는 이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자유 자재로 구사하며 롯데 타선을 쉽게 요리했다.

직구는 최고 144km를 뿌렸는데 변화구 구사 비율이 높아 체감 속도는 훨씬 빠를 것으로 평가됐다.

스코비는 직구는 카운트를 잡기 위해 맛보기로 던졌고 중요한 결정구는 바깥쪽으로 휘어져 가는 슬라이더를 뿌렸다.

5회까지 63개를 던지는 동안 직구가 35개, 변화구가 28개였는데 롯데 타선은 2회 이원석이 3루를 빙기고 좌익수 앞으로 가는 안타가 가장 잘 맞은 것이었을 정도로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136km의 슬라이더와 130km를 갖는 체인지업, 130km대 중반의 투심 직구도 간간히 섞어 던지면서 타자들을 현혹시켰다.

스코비가 호투하면서 선발진 구성에 애로를 겪던 KIA 마운드도 숨통이 트였다.

서정환 KIA 감독과 김봉근 투수 코치는 윤석민-스코비-진민호-이상화 등으로 선발진을 재편했고, 한기주와 필승 계투조를 이뤄왔던 셋업맨 신용운을 선발진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용운의 빈자리는 새로 영입한 켈릭 로드리게스(35)가 나선다. 전성기 때 161km의 강속구를 뿌렸다는 로드리게스는 선발은 힘들지만 "하루 45~50개 정도는 너끈히 던질 수 있다"며 셋업맨을 강력히 희망, 한기주와 '공속구 듀오'를 형성하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윙 바꾸니 정상 보이네”



최경주 내일 PGA 인비테이셔널 출전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스타일이다.

일년 내내 “스윙을 고치고 있다”고 말하곤 하는 그가 플레이어스챔피언십에서 격전을 치른 피로를 씻고 복귀한다.

25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골프장(과70·7천54야드)에서 열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스윙을 고치는 작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최경주가 매달려온 스윙 개조의 핵심은 샷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준선 정렬(레이팅)을 견고하게 만들고 스윙 폼을 간결하게 가다듬는 것.

PGA 투어는 최근 쏟아져 나오는 장타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정교한 샷을 구사하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도록 코스를 세팅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경주가 정확한 샷을 날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최경주는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가 278.2야드로 줄어 들었다.

최경주는 “언제나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볼을 떨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면 비거리 늘리기는 일도 아니다”며 정확도 향상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플레이어스챔피언 때부터 샷의 정확도가 부쩍 높아져 흐트러졌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는 적어도 5위 이내 입상을 노리고 있다.

콜로니얼골프장은 장타보다는 정교함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코스이다. 드라이브샷조차 어느 지점에 볼을 떨어뜨릴지 미리 생각해놓고 날려야 다음 샷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정교한 샷을 위해 매진해 온 최경주에게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최경주는 지난해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3타의 맹타를 휘두르기도 했다.

두 차례 이곳에서 우승을 차지한 베테랑 케니 페리와 데이비드 톰스, 스티브 버플랭크, 스티브 스트리커(이상 미국) 등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렇다 할 강호들이 출전하지 않는 것도 최경주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인왕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과 나상욱(23·코브라골프)도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끝없는 도전 컷통과 자신



위성미 7월 ‘男대회’ 존디어클래식 초청 수락

위성미(1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에서 3년 연속 출전한다.

위성미는 7월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버스피의 디어던TPC에서 열리는 대회의 스폰서 초청을 수락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위성미의 이 대회 출전은 2005년부터 시작해 세번째다.

위성미는 2005년 존디어 클래식에서 처음 출전해 2라운드 합계 1언더파 141타로 공동 88위에 오르면서 아쉽게 2타차로 컷 통과에 실패했고, 2006년에는 1라운드에서 77타의 부진한 성적을 낸 뒤 2라운드 도중 일사병 증세로 탈진해 기권했다.

올해 1월 소니오픈에 출전했다가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아온 위성미는 다음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마운틴플리젠트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긴 트리뷰트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편 긴 트리뷰트 주최자인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두 달 가까운 공백을 끝내고 출전, 흥미를 돋우게 됐다.

소렌스탐은 4월 크라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 출전 이후 허리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희섭 결장... 왜?

19일 두산전에서 옆구리 다쳐 통증 호소
코치진 “부상으로 변화구 대처 떨어져”



“변화구 범재만 나도 당하네.”

“빅쇼이” 최희섭(28·KIA)이 국내 데뷔 3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구단의 결정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다.

서정환 KIA 감독은 23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을 앞두고 “(최)희섭이가 옆구리에 통증이 온다고 해 이틀정도 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국내 프로야구 데뷔전을 치른 지난 19일 주무 도중 두산 2루수 정원석과 부딪혀 왼쪽 옆구리를 다친 뒤 풀스윙을 자제하고, 짧은 스윙으로 2경기를 소화해 왔다.

지난 20일 두산전에서 5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린 최희섭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날 다친 옆구리, 정확히 말하면 옆구리와 가슴 사이의 통증이 아직도 남아있어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했다. 홈 경기(22~24일)때엔 풀스윙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22일에도 최희섭은 4타수 무안타로 부진, 그동안 3경기에서 14타수 2안타(0.143)에 삼진을 5개나 당하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물론 자신의 말대로 부상이 원인이라면 회복되면 그만이지만, 상대팀들이 최희섭의 약점을 철저히 파악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최희섭은 직구 외에는 철저히 헛방망이질을 해내고 있다. 변화구는 범재만 맡아도 고개를 떨군다. 그동안의 기록만 놓고 보면 승부구에서 몸쪽 슬라이더나 바깥쪽 체인지업만 쓰면 최희섭은 삼진이웃이다.

최희섭의 데뷔전인 지난 19일과 20일 두산 마운드는 직구와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 던졌다. 일종의 테스트인 셈이다. 결국 직구는 위협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희섭은 19일에 5타수 무안타로 물러났지만, 4번째 타석에서 몸쪽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2루수 직선타로 연결했다. 상대 2루수의 호수비가 아니었더라

지난 19일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KIA와 두산의 경기 9회초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KIA 홈세안의 좌전안타 때 1루 주자 최희섭이 주루 플레이 중 두산 2루수 정원석과 부딪힌 후 괴로워하고 있다.

면 좌중간을 꿰뚫는 안타로 연결될 타구였다.

5타수 2안타를 터트린 20일엔 약점과 강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첫 타석에서 상대 내야진의 호수비로 병살타를 기록한 최희섭은 두번째 타석에선 상대 이경필의 바깥쪽 140km짜리 높은 직구를 받아쳐 깔끔한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번째 타석에선 바깥쪽으로 빠지는 122km짜리 체인지업에 속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다행히 7회에는 110km짜리 바깥쪽 체인지업을 때려 우익선상에 푹 떨어지는 행운의 2루타를 만들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엉덩이가 빠진 상태에서 푹 맨 것이었다.

최희섭은 이날 마지막 타석에서도 바깥쪽 체인지업에 속아 헛스윙 삼진으로 고개를 떨쳤다.

22일 롯데전에서 약점이 더욱 명확하게 노출됐다. 롯데 마운드는 최희섭에게 아예 직구를 던지지 않았다.

변화구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상으로 인한 타격폼에 있다.

이건열 KIA 타격코치는 “아직 컨디션이 70% 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 또 옆구리 부상으로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타격을 할 때 몸을 일으키면서 공을 치다보니 떨어지는 변화구의 타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코닝골프장은 우리 땅”

LPGA 코닝클래식 내일 개막

한국남자들 대회 3연패 다짐

이지영(22·하이마트)과 이정연(28)이 2주 연속 정상 문턱에서 빠졌던 시즌 두번째 우승에 실패한 ‘코리아인시스터스’가 안방이나 다름없는 뉴욕주 코닝에서 ‘3수(修)’에 나선다.

25일(한국시간)부터 나흘 LPGA 투어 코닝클래식 이 열리는 코닝골프장은 전장 6천62야드로 짧은 편인데다 페어웨이가 좁고 그린이 작은 ‘구식’ 코스이다.

짧고 좁고, 그린이 작은 골프장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한국 선수들에게는 마치 국내 대회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인지 한국 선수들은 코닝클래식에서 유난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2005년 강지민(27·CJ), 지난해 한희원(29·힐라코리아)이 최근 2년 우승했다. 특히 이 대회를 앞두고 가승이 실례는 선수는 이미나(26·KTF)다. 이미나는 신인인던 지난 2005년 이 대회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김미현도 코닝골프장을 관여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짧고 좁은 코스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스코어를 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김미현은 “코닝골프장은 내 입맛에 딱 맞는 곳인데 정작 우승은 커녕 한 번밖에 10위 안에 들지 못해 올해는 더 욕심이 생긴다”고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7주 연속 대회 출전이라는 강행군을 펼쳐야 하는 투이 일정상 코닝클래식은 쉬어 가야 하는 대회이지만 김미현은 우승 욕심에 출전을 강행했다.

지난 대회 때 기권을 불렀던 발목 통증도 뉴욕 한의원 찾아가 침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시절이 낡고 선수들에 대한 대회조직위원회의 대접도 신통치 않아 기피 대상인 코닝클래식은 상위 랭커들이 상당수 불참한다는 점도 김미현과 이미나의 의욕을 북돋는 요인이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수잔 페테르슨(노르웨이), 브리타니 린시킵, 스테이시 프라미니수드, 모건 프레셀(이상 미국), 이지영, 이정연 등 삼강행기 1~7위 선수들이 모조리 빠졌다.

상금 10걸 가운데 8위 플라 크리머(미국)와 10위 김미현 등 2명만 출전하는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2005년 우승자 강지민과 이선화(21·CJ), 박지은(27·나이키골프), 안시현(23), 배경연(22·CJ) 등이 눈에 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